

경제적 제약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 자유의지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 희 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제적 제약과 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는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내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제약이 유발하는 정서적 영향은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괜찮은 교육을 포함한 PWT 프레임워크와 자기결정성 이론을 활용하여 경제적 제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 자유의지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4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과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 자유의지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제약으로 유발된 감정이 일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 자유의지를 통한 경제적 제약의 간접적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하였다.

주요어 : 경제적 제약, 진로준비행동,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일 자유의지, 대학생

† 제1저자(Main Author): 이희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5호, Tel: 02-2123-4881, E-mail: hlee124@yonsei.ac.kr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8호, Tel: 02-2123-2445, E-mail: khlee2445@yonsei.ac.kr

Copyright ©2024,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결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이 커지고(Arnett, 2007), 성인으로서의 직업 역할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Arnett, 2000). Super(1980)의 생애주기이론(life-span theory)에 따르면 대학생은 탐색 단계에 있으며, 이 시기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실행(implementation)이다. 실행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고 이에 깊이 관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대학 시기는 자신의 진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취업 준비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정화 외, 2012).

그러나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및 진로 개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진로 준비 과정은 상당히 방해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자원이 충분한 경우,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스스로가 직업과 관련된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된다(Thompson & Subich, 2006; Metheny & McWhirter, 2013). Blustein과 그의 동료들은(2002)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진로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정서적 지원과 일자리 추천 및 진로 관련 지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투자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이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Blustein, 2008). 반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대학 경험과 구직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희삼, 2015),

특히 어린 시절에 심각한 경제적 제약을 경험한 개인은 괜찮은 교육(decent education)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Duffy 외, 2022).

많은 심리학자들이 선행 연구에서 확인해 온 것처럼 경제적 제약은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질적 어려움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며(Heflin & Iceland, 2009),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불안정성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악화시킨다(Raver, 2003). 또한 자신이 높은 수준의 제약을 경험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낮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Elder & Caspi, 1988).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의 진로 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직업 선택에서 회피적 대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Brown et al., 2012). 이러한 감정들은 개인에게 진로 결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며, 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진로 개발 과정이나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Blustein et al., 2013). 결과적으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진로 준비에 대한 몰입도와 통제감이 낮아지며, 개인이 진로 준비에 들이는 노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Bandura, 1986).

특히 경제적 제약은 사회적 활동 참여를 제한하여 사회적 소속감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을 유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FoMO는 기본심리욕구 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Deci & Ryan, 2000)에 따라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제약으

로 인해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이는 개인의 관계 만족도를 낮추고 동기 부여를 저하시켜 학업 및 행동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Duffy et al., 2022).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관계성 및 유대감의 측면에서도 대학생들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 사회불안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관계 만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이소연 등, 2024).

본 연구에서는 PWT의 기존 구성 요소에 정서적 요인을 추가로 통합하여,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은 정서적 요인이 개인의 통제감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PWT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PWT에 따르면 괜찮은 일은 생존, 소속감, 자기결정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과 소외 경험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Duffy et al., 2016).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소외 경험이 주로 학벌에 의한 차별 경험으로 여러 연구에서 측정되었다(한은진, 2024; Song & Lee, 2023). 더 나아가 소외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Duffy & Dik, 2009), 이는 개인이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타인에게 뒤처진다는 불안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소외 경험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진로 준비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모형에 포함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경제적 제약은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제약은 자율성과 관련된 심리적 변수를 통해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WT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의지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결과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Duffy 외, 2012). 일 자유의지는 개인이 경제적,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해 자율적이라고 느끼는 능력을 의미하며, 진로 통제 소재, 진로관여행동, 괜찮은 일에 대한 미래 인식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Duffy et al., 2012; Kim et al., 2019; Song & Lee,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의지를 통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소외감은 학생들의 일 자유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경제적 제약이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소속감 결여를 유발하며, 이는 학생들이 자율성과 관계성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Duffy et al., 2022). 특히, 소속감 부족에서 기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더욱 두드러진다. 기존 연구에서도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진로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 관련 정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Gati & Levin, 2014). 이에 따라 괜찮은 교육을 포함하는 PWT 프레임워크에서는 높은 수준의 소속감을 경험한 학생들이 졸업 후 더 많은 취업 선택권을 인지한다고 하여 소속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Duffy et al., 2022). PWT에서 괜찮은 교육(decent education)은 괜찮은 일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새롭게 제시되었다(Duffy et al., 2022). 괜찮은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생존, 소속감, 자기결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 기회를 얻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유발된 소외감과 불안이 일 자유의지에 미치는 명백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PWT 내에서 이러한 정서적 요인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FoMO와 일 자유의지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국내 대학생들에게 진로 개발 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경제적 제약은 전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며(Duffy et al., 2016) 객관적 혹은 주관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객관적 경제적 제약은 가구 소득 및 연간 소득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 주관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Kim et al., 2019).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개인의 내적 심리 기능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보아, 경제적 제약을 측정할 때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 인식을 주로 고려한다(안진아, 정애경, 2019; Duffy et al.,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관적 경제적 제약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제약을 내재적 불평등의 원천으로 인식하며,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이희정, 2022), 경제적 제약이 우리 사회에서 진로 준비 및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 관련 변수는 경제적 제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고 더 효과적인 진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Metheny & McWhirter, 2013), 상당한 경제적 제약을 경험했다고 인식하는 대학생들이 미래에 괜찮은 직업을 얻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Ma et al., 2021). 더 나아가 손은령과 손진희(2005)는 앞선 연구들을 확장하며 재정적 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장애물에 직면한 개인은 최소한의 경력 계획만 세우고(Cardoso & Moreira, 2009),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Hirschi, 2011).

비록 PWT에는 진로준비행동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 진로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Black, 2006; Krieshok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였다. Black(2006)에 따르면 진로와 관련된 행동적 경험은 개인이 자신과 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정보는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또한 불확실하고 변화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일생에 걸친 폭넓은 진로 관련 행동을 다루는 진로준비행동이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 준비 과정에서의 행동을 포괄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진로준비행동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주요 진로 이론들이 진로 관련 행동이 맥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관점과도 부합한다

Mitchell & Krumboltz, 1996; Walsh & Savickas, 2005).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진로준비행동은 일과 관련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찾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특히 경제적 제약은 한국 사회에서 성인 초기의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은 사회 계층을 내재적 불평등의 원천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가족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공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믿음에 의해 형성된 인식이다(이희정, 2022). 그 결과, 한국인들은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는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장벽으로 간주하여 진로 준비 과정에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족적 배경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경험, 구직 역량, 고등교육 이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김희삼, 2015). 또한 한국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은 논리적이고 다양한 근거에 기반하기보다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사회적 비교에 기반하고 있다(최령, 박재용, 황병덕, 2013).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실제 상황보다 더 나쁘게 인식하게 만든다(서미혜, 2017). 따라서 자신이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일생 동안 더 큰 경제적 제약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대학생의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

FoMO와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 관련 결과 변인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지만, 경제적 제약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Anderson과 그의 동료들(2015)은 자신을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두려움, 낮은 자기효능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김민선, 2014). 경제적 장벽에 직면하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연한 불안 상태인 FoMO가 유발되는데, 이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Przybylski et al., 2013). FoMO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소외감, 박탈감, 무능력감,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박지수, 서영석, 2018; Alt, 2015). 본 연구에서는 FoMO를 경제적 제약이 유발하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연결과 중요한 기회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 PWT에 관측은 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프레임워크(Duffy 외, 2022)에 따르면, 사회적 소속감은 관측은 교육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 이는 학생들이 학교 환경 내에서 느끼는 사회적 연결성과 소속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관측은 교육 환경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또래와 사회적 유대감을 덜 느끼며, 사회 활동에 덜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Darling-Hammond, 2010),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결과 기회에 대한 접근에서 제한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제약이 많은 학생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소중한 사회적 및 교육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경제적 제약이 FoMO와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가설 2).

한국의 경우,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FoMO는 한국의 집단주의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문화에 의해 조장된다. 개인의 특성보다 집단의 특성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는 자신을 다수와 구별되는 존재로 여기는 개인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박지수, 서영석, 2018). 또한 상황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한국인의 관점은 개인의 자아 개념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이명희, 김아영, 2008), 관계에 대한 욕구를 유발한다. 따라서 개인은 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와 관련하여 FoMO를 경험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비교를 유도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한다(정소라, 현명호, 2015).

FoMO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박지수, 서영석, 2018; Przybylski et al., 2013). 세대별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의 소셜 미디어 이용률이 8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이러한 높은 이용률은 대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이상화된 타인의 모습에 노출되는 빈도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교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양혜승, 2015).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및 불이익에 대한 지각으로 이어진다. FoMO를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이 놓친 기회나

부족한 자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며(Baker et al., 2016),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진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집중과 헌신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개인이 낙담하게 될 경우 진로 준비를 회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Brown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FoMO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4). 또한 경제적 제약에서 비롯된 FoMO가 사람들이 진로 준비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FoMO가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가설 7).

이전 연구에서도 경제적 제약이 개인의 진로 결정에서 느끼는 통제감, 즉 일 자유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탐구된 바 있다(Duffy, Diemer, et al., 2012). PWT에 따르면,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는 경제적 제약과 소외 경험 등에 영향을 받는다(Duffy, Douglass et al., 2015). 또한 일 자유의지는 연령, 인종, 문화에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과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uffy, Velez, et al., 2018; Duffy, Gensmer et al., 2019). Allan 등(2020)의 종단 연구 결과 역시 경제적 제약이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한국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는 진로 장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래, 이기학,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제약은 일 자유의지와 부적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가설 5).

반면 일 자유의지는 긍정적인 진로 관련 변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Duffy, Diemer, & Jadian, 2012).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일 자유의지는 강력한 진로 통제 소재, 진로관여행동, 괜찮은 일에 대한 미래 인식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ffy, Diemer, & Jadidian, 2012; Kim et al., 2019; Song & Lee, 2023). 또한 개인은 일 자유의지를 경험할 때, 선택 가능한 진로 대안이 다양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Duffy et al., 2012), 이는 삶 전반에서 긍정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Blustein,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 자유의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가설 6)을 세웠다. 나아가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는 경제적 제약과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의 관계에서 입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제적 지위와 진로 적응력 간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가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utin et al., 2017).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는 일하는 성인의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간의 관계(Williams et al., 2023), 그리고 성인 초기의 괜찮은 일에 대한 미래 인식(Song & Lee, 2023)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로 관련 행동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8).

또한 FoMO와 일 자유의지가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과 괜찮은 교

육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PWT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Przybylski와 동료들(2013)은 인간의 동기가 자신의 내적 통제에 의해 주도될 때 가장 높으며 이러한 통제감은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촉진된다고 가정하는 SDT(Deci & Ryan, 1985)에 기초하여 FoMO를 기본 심리적 욕구와 연결 지었다. 관계성은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감을 의미하며(Ryan, 1995).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FoMO가 심화되어 개인은 자신이 놓친 경험에 대한 불안과 비교 감정을 느낀다(Ryan & Deci, 2000). 이는 자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율성은 개인이 외부 환경의 압력이나 강요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5). 특히 자율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강화된다. 따라서 FoMO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지각으로 인해 자율성이 감소하면 일 자유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FoMO(관계성을 나타내는 변인)가 일 자유의지(자율성을 나타내는 변인)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다(가설 3).

Duffy 외(2022)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괜찮은 교육은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괜찮은 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소속감(belongingness)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제적 제약이 클수록 개인이 괜찮은 교육 환경과 같은 기회에 접근할 가능성이 적어지며, 이를 ‘기회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opportunity)’의 문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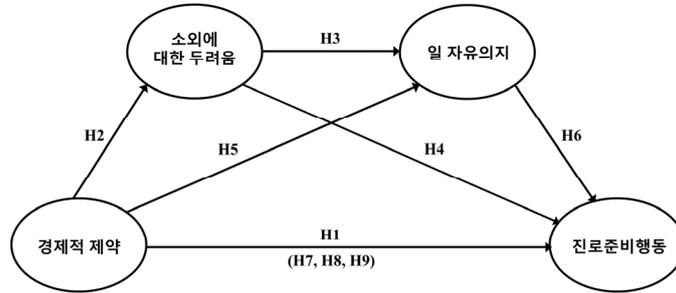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설명할 수 있다(Duffy et al., 2022). 이러한 기회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이 남들보다 중요한 사회적, 교육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는 곧 FoMO로 이어질 수 있다. FoMO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자율성, 즉 일 자유의지를 감소시키며,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FoMO와 일 자유의지가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가설(가설 9)을 세웠다. 구체적인 가설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가설 1. 경제적 제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경제적 제약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일 자유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경제적 제약은 일 자유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일 자유의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7.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8. 일 자유의지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9.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 자유의지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초기의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FoMO와 일 자유의지의 순차적 매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WT와 SDT의 핵심 선행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아직 진로를 준비 중인 대학생이라는 점과 진로 준비 과정에서 행동이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하여, 결과 변인을 진로준비행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불안이 인간의 자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가정 하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 변수로 모델에 포함시켰다. 경제적 제약은 FoMO를 유발하여 진로 결정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개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방 법

대상

본 연구는 4년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29세($M=21.87$, $SD=2.35$)의 학부생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200명(50%)은 여성, 200명(50%)은 남성이었다. 이 중 1, 2, 3학년은 각각 100명(25%), 4학년은 92명(23%)이었으며 4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8명(2%)이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계열 48명(12%), 사회계열 56명(14%), 상경계열 46명(11.5%), 사범계열 25명(6.25%), 자연계열 37명(9.25%), 공학계열 135명(33.75%), 예체능계열 16명(4%), 의·치·간호 및 보건계열 30명(7.5%), 생명과학계열 1명(0.25%), 기타 분야 6명(1.5%)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가자는 전문 온라인 설문업체 Embrain(www.embrain.com)을 통해 모집되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받는 것에 동의한 예비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보내 대상을 모집하였다. 설문에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전 동의서, 인구통계학적 질문, 검증 문항,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가 포함되었다.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데이터는 Embrain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응답자들에게는 설문조

사에 참여한 대가로 2,000포인트(약 2천 원)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설문조사 시작 시 연령(18세 미만 또는 29세 이상), 학교 유형(전문대), 재학 상태(휴학 또는 수료)에 대한 대상자 포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응답자는 제외되었다. 앞서 언급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의 검증 문항(예: “매우 동의합니다”를 선택해 주세요.)에 모두 올바르게 응답한 응답자의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경제적 제약

생애 동안 경험한 경제적 제약을 측정하기 위해 Duffy et al.(2019)가 개발한 경제적 제약 척도(Economic Constraints Scale; ECS)를 Song과 Lee(2023)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5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와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스스로 가난하거나 가난에 매우 가깝다고 여겼다.”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적 제약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Duffy et al.(2019)의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4로 나타났고, Song과 Lee(202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내적일치도가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93으로 확인되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Przybylski et al.(2013)이 개발하고 주은선 등(201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소외에 대한 두려

움 척도(Fear of Missing Out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요인(소속 욕구, 외적 동기, 상대적 박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나와는 전혀 다르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된다.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과 만날 기회를 놓치면 신경이 쓰인다(소속 욕구)”, “가끔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라잡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외적 동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보람 있는 경험을 할까 봐 걱정된다(상대적 박탈감)”.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은선 등(201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6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6이었다.

일 자유의지

대학생들의 일 자유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Duffy 등(2012)이 개발하고 김나래와 이기학(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일 자유의지 척도-학생용(Work Volition Scale-Student Version; WVS-SV)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제약 하에서 진로 선택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척도는 2요인(의지, 제약)이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약의 경우 역코딩 과정을 거치게 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일 자유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각 문항을 평가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의지).”,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지 않는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다(제약).”가 있다. Duffy et al.(2012)의 내적일치도는 .87로 나타났

고, 김나래와 이기학(2014)에서도 .87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 수준을 행동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해 최윤경과 김성희(2012)가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다)로 평가된다. 척도는 진로 준비와 관련된 행동의 각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3요인(자기이해, 직업능력향상, 직업세계탐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개 문항이다. 각 하위 요인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강점을 잘 알고 있다(자기이해).”, “나는 진로와 관련된 스터디 활동을 한다(직업능력향상).”, “나는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조건을 찾아본다(직업세계탐색).” 기존 연구(최윤경, 김성희, 2012)와 본 연구 모두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RStudio와 Mplus 8.10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RStudio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변인 간의 상관관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Mplus 8.10을 사용하여 측정 모형을 분석하여 잠재 변수가 해당 항목을 적절히 측정하는지 확인하고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활용하였다. 이어서 구조 모형을 평가하여 순차적 매개 경로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한 후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적(+) 상관관계($r=.41, p<.01$)를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각각 |2|와 |7|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변수에 대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Finney & DiStefano, 2013). 설문업체에서 응답자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문항을 완료하도록 요구한 결과, 누락된 데이터는 없었다. 또한 z 점수가 절댓값 3을 초과하는 단변량 이상값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Kline(2023)의 기준에 따라 모든 자료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예상대로 경제적 제약은 FoMO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4, p<.01$), 일 자유의지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6, p<.01$). FoMO는 일 자유의지와 부적(-) 상관관계($r=-.32, p<.01$)를 보였으며, 일 자유의지는 진로준비행동과 정

본 연구는 관측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설정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Mplus 8.10(Muthén & Muthén, 2017)을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경제적 제약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개별 문항을 관측변인으로 사용하였고, FoMO, 일 자유의지,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하위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관측변인을 구성하였다. Browne과 Cudeck(1992) 및 Hu와 Bentler(1999)의 권장 임계값을 기준에 따르면 측정 모형의 전반적인 지표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chi^2(126) = 405.77, p<.001, CFI = 0.93, TLI = 0.92, RMSEA = 0.075(90\% \text{ 신뢰구간: } .07-.08), SRMR = 0.06$). CFI와 TLI는 0.9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었고, RMSEA는 0.08 미만이었으며, SRMR은 0.05에서 0.08 사이로 나타나 모델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Hu & Bentler, 1999). 또한 표준화된 측정 변수의 모든 적재치가 0.45를 초과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는 잠재 변수가 해당 지표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음을 보여준다(Tabachnick & Fidwell, 2007).

표 1.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M(SD)	요인1	요인2	요인3
1. 경제적 제약	3.18(1.49)	-		
2. 소외에 대한 두려움	2.33(0.85)	.24**	-	
3. 일 자유의지	4.53(0.90)	-.46**	-.32**	-
4. 진로준비행동	3.23(0.60)	-.08	-.06	.41**

** $p < .01$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

측정 모형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으므로 경제적 제약을 예측 변수로, FoMO(매개변인 1)와 일 자유의지(매개변인 2)를 순차 매개 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결과 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로 설정한 순차 매개 모형은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chi^2(126) = 405.77, p < .001, CFI = 0.93, TLI = 0.92, RMSEA = 0.075(90\% \text{ 신뢰구간: } .07-.08), SRMR = 0.06$).

또한 직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경제적 제약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의 직접 경로는 유의했지만 예상한 방향과 반대였기에 가설 1을 기각하였다($B = .12, \beta = .31, p < .05$). 그러나 경제적 제약에서 FoMO($B = .19, \beta = .27,$

$p < .001$)와 일 자유의지($B = -.28, \beta = -.56, p < .001$)로의 직접 경로가 부적(-)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와 5를 지지하였다. 또한 FoMO는 일 자유의지에 부적(-) 영향을 보여 가설 3을 지지하였지만($B = -.20, \beta = -.029, p < .001$),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B = .09, \beta = 0.15, p > .05$)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일 자유의지는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이고 정적(+) 관계가 있어 가설 6($B = .55, \beta = 0.71, p < .01$)이 지지되었다. 직접 경로에 대한 구조 모형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5,000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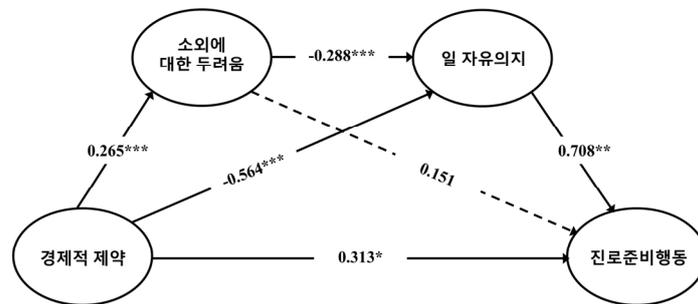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및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 2.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간접경로	간접효과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 EC→FoMO→CPB	.02	.01	-.004	.051
2. EC→WV→CPB	-.15**	.07	-.315	-.044
3. EC→FoMO→WV→CPB	-.02**	.01	-.057	-.004

주. N = 400. 부트스트래핑 횟수: 5,000번. ** $p < .01$. 간접효과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이다.
EC = 경제적 제약, FoMO = 소외에 대한 두려움, WV = 일 자유의지, CPB = 진로준비행동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매개 분석 결과, FoMO에 대해서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발견되지 않아 가설 7이 기각되었다($B=0.02$, 95% CI [-0.004, 0.05]). 반면, 일 자유의지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매개하여 가설 8을 지지하였다($B=-0.15$, 95% CI [-0.32, -0.04]). 순차 매개 분석에서는 경제적 제약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가 FoMO와 일 자유의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2$, 95% CI [-0.06, -0.004]). 따라서 가설 9는 지지되었다. 결과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FoMO와 일 자유의지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고). 우선, 순차 매개 분석 결과, 예상대로 FoMO와 일 자유의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제약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준비 과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경제적 제약과 심리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환경적 제약은 진로 준비 과정에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영향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기 결정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일 자유의지를 감소시킨다. 즉, 개인이 진로 결정에 있어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진로 준비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력 개발을 검토할 때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매개 모형 분석 결과,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가설로 설정한 매개효과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제약이 경력 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일 자유의지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제적 제약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일 자유의지가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England, et al., 2016; Kim et al., 2019; Song & Lee, 2023). 이와 같은 일 자유의지의 핵심적인 역할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경제적 제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경제적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진로 준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경제적 제약이 FoMO를 통해 진로 준비에 미치는 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FoMO는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oMO와 같은 정서적 고통이 개인의 동기와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개 요인이 필요하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rzybylski et al., 2013). 즉, FoMO가 발생하면 이러한 두려움이 개인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어 행동을 저하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행동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직접 경로들은 지지되지 않았다.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지만 예상과 달리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개인이 자신

의 직업적 행동을 이해하고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구성한다는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05)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잠재적으로 진로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개인은 진로 개발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행동은 제약에 대한 능동적 적응 행동으로, 개인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한국의 청년들이 낮은 소득을 사회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이용관, 2018), 계층 지위 향상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는 한국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직업 준비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 부호가 반대로 나타난 것은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억제효과란 변인 간 단순상관이 유의하지 않더라도, 매개모형 분석 후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관계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날 때 억제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된다(서영석, 2010; Cohen et al., 2003). 특히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 부호가 정반대일 경우, 억제효과와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이 경우 매개변인이 억제변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MacKinnon et al., 2000; 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FoMO와 일 자유의지와 같은 매개변인들이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김하영과 김수영(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의 양가적 작용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제약은 개인의 동기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스트레스와 좌절을 유발하는 양가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가 매개변수를 통한 억제효과인지, 독립변수의 양가적 작용인지를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FoMO는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oMO가 개인의 자율성을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진로 준비와 같은 행동적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론적 및 실질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경제적 제약이 심리적 변수를 통해 일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PWT의 주요 가설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아직 일 세계에 진입하지 않은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결과 변수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을 결과 변수로 사용한 것은 Duffy 등(2022)이 최근 괜찮은 교육 변인을 포함하여 제시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도 뒷받침된다. 기존 PWT에서는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만을 심리적 변수로 제시했지만, Duffy 등(2024)은 이 이론을 새로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틀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WT와 SDT의 이론적 틀 내에서 경제적 제약의 결과이자 일 자

유의지의 예측 변수로 FoMO를 새로운 변수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제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FoMO와 일 자유의지가 순차적으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과거의 진로 상담은 주로 상황적 제약이 경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감정을 핵심 문제로 광범위하게 다루지만(Greenberg & Paivio, 1997), 진로 상담에서는 정서적 경험을 진로 발달의 기본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못하였다(공윤정, 2014). 그러나 진로 결정을 위해 상담을 받는 학생들은 진로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정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현실이다(Gati et al., 1996). 따라서 내담자의 상황적 제약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심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진로 상담사와 교육자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사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로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제약을 평가하고, 이러한 제약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경제적 제약을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Song & Lee, 2023), 이러한 장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제약을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담사는 학생들의 감정을 확인하고 구조적 장벽을 설명함으로써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부적절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교육자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형성된 교육

환경을 조사하고 이러한 환경이 내담자의 소속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이 학생들의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정서적, 구조적 문제를 모두 다루는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FoMO를 포함한 순차적 매개효과 또한 잠재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상담자와 교육자는 학생들이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계성, 자율성 등 학생에게 충족되지 않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Tarsha(2016)는 실존적 관점에서 FoMO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그러나 FoMO를 완화하기 위해 성급하게 관계를 형성한다면 당장의 생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Yalom, 1980). 따라서 상담사는 학생들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실존적 불안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돕고, 의미 있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사는 내담자와 진정한 연결의 대상으로서 내담자의 관계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 자유의지의 매개 역할은 상담사가 학생들과 협력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는 학생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돕는다. 특히 상담사가 학생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학생의 강점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때 학생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

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한다(Markland et al., 2005). 따라서 상담사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경제적 제약을 함께 살펴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성을 키우고 진로 선택과 준비에 대한 통제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어 시간적 또는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했으나, 한번의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특정 시점의 인식에 기반해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점진적으로 진로 준비를 하지 않고 4학년이 되어서야 진로 준비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손은령, 손진희, 2005), 진로 준비는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 및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성인 초기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적 제약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제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가

능성이 존재한다.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험되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약 수준이 다양한 표본을 포함하여 경제적 제약 정도에 따른 영향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FoMO 수준은 인구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와 달리 개인의 특성보다 집단의 특성이 우선시되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자신을 다수와 다르다고 인식할 경우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박지수, 서영석, 2018).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한국 맥락에 적용 가능하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서양 간 추가적인 문화 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PWT를 기반으로 FoMO를 심리적 매개 변수로 제안한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이 변인을 포함하여 더 넓은 표본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한정하여 경제적 제약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FoMO가 이러한 제약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는 진로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과 FoMO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이러한 접근을 선택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학력, 성별, 성적 지향 등 한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소외 경험을 포함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공윤정 (2014).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 구, 15(1), 27-43.
- 김나래, 이기학 (2014).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 Work Volition Scale(WVS)의 타당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3(2), 41-58.
- 김민선 (2014).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적응유연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적응유연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4), 145-166.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417-442.
- 김하영, 김수영 (2020).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 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 김희삼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박지수, 서영석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239-1269.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미혜 (2017). SNS 이용이 상대적 박탈감과 객관적 주관적 경제 지위 간 격차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83, 72-95.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안진아, 정애경 (2019). 일의 심리학 이론의 한국 진로상담 적용 방안. *상담학 연구*, 20(2), 207-227.
- 양혜승 (2015). 상대적 박탈감은 언제 발생하는가?: 등장인물의 특성 및 수용자 개인의 속성이 상향비교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9(6), 137-171.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소연, 김아린, 김현아, 장소연, 정기윤, 최민정, 김민선 (2024). 대학생들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의 매개효과: 퍼빙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2), 175-201.
- 이용관 (2018).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 *보건사회연구*, 38(4), 465-491.
- 이희정 (2022). 청년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6(2), 45-8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세대별 SNS 이용 현황. KISDI STAT Report, 22(11),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790&masterId=4333447&arrMasterId=4333447&artId=659156>
- 정소라, 현명호 (2015). SNS 이용자의 상향비교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재효과: 페이

- 스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03-717.
- 주은선, 전소연, 심솔지 (2018). 한국형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타당화 연구-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8(2), 248-261.
- 최령, 박재용, 황병덕 (2013). 소득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의료이용-[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11(1), 1-23.
- 최윤경, 김성희 (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 2085-2097.
- 한은진, 이기학 (2024). 경제적 제약과 학벌로 인한 소외가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Alt, D. (2015). College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media engagement and fear of missing ou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9, 111-119.
- Allan, B. A., Sterling, H. M., & Duffy, R. D. (2020).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economic deprivation, work volition, and academic satisfaction: A psychology of working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0, 311-329.
- Anderson, C., Hildreth, J. A. D., & Howland, L. (2015). Is the desire for status a fundamental human motiv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41(3), 574-601.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Autin, K. L., Douglass, R. P., Duffy, R. D., England, J. W., & Allan, B. A. (2017). Subjective social status, work volition, and career adaptabili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9, 1-1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1986 (23-28), 2.
- Black, M. D. (2006). *Reason, intuition, and engagement: A trilateral model of adaptive career decision-mak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 Blustein, D. L. (2008). The role of work in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A conceptual, historical, and public policy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63(4), 228-240.
- Blustein, D. L., Chaves, A. P., Diemer, M. A., Gallagher, L. A., Marshall, K. G., Sirin, S., & Bhati, K. S. (2002). Voices of the forgotten half: The role of social clas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311-323.
- Blustein, D. L., Kozan, S., & Connors-Kellgren, A. (2013).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 narrative analysis about lo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3), 256-265.
- Brown, S. D., Hacker, J., Abrams, M., Carr, A., Rector, C., Lamp, K., Telander, K., & Siena, A. (2012).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 3-21.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ardoso, P., & Moreira, J. M. (2009). Self-efficacy beliefs and the relation between career planning and perception of barrier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9, 177-188.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1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outledge.
- Darling-Hammond, L. (2015). *The flat world and education: How America's commitment to equity will determine our future*. Teachers College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1), 14-23.
- Duffy, R. D., Choi, Y., Kim, H. J., & Park, J. (2024). Recommendations for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nstructs within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2(1), 48-62.
- Duffy, R. D., Diemer, M. A., & Jadidian, A. (2012).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Work Volition Scale-Student Ver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2), 291-319.
- Duffy, R. D., Diemer, M. A., Perry, J. C., Laurenzi, C., & Torrey, C. L. (2012). Th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Work Volition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 400-411.
- Duffy, R. D., & Dik, B. J. (2009).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1), 29-43.
- Duffy, R. D., Douglass, R. P., Autin, K. L., & Allan, B. A. (2015). Examining predictors of work voli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441-459.
- Duffy, R. D., England, J. W., Douglass, R. P., Autin, K. L., & Allan, B. A. (2016).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127-148.
- Duffy, R. D., Gensmer, N., Allan, B. A., Kim, H. J., Duff, R. P., England, J. W., Autin, K. L., & Blustein, D. L. (2019). Developing, validating, and testing improved measures within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2, 199-215.
- Duffy, R. D., Kim, H. J., Perez, G., Prieto, C. G., Torgal, C., & Kenny, M. E. (2022). Decent education as a precursor to decent work: An overview and construct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8, 103771.
- Duffy, R. D., Velez, B. L., England, J. W., Autin, K. L., Douglass, R. P., Allan, B. A., & Blustein, D. L. (2018). An examination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with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employed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3), 280-293.

- Elder J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25-45.
- Finney, S. J., & DiStefano, C. (2013). Non-normal and categorical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R. Hancock & R. O. Mueller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 (2nd ed., pp. 439-492). Information Age Publishing.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ati, I., & Levin, N. (2014). Counseling for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Measures and method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2), 98-113.
- Greenberg, L. S., & Paivio, S. C. (1997). Varieties of shame experience in psychotherapy. *Gestalt Review, 1*(3), 205-220.
- Heflin, C. M., & Iceland, J. (2009). Poverty, material hardship, and depression. *Social Science Quarterly, 90*(5), 1051-1071.
- Hirschi, A. (2011). Callings in career: A typological approach to essential and optional compon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60-7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ng, H., Reeve, J., Ryan, R. M., & Kim, A. (2009). Can self-determination theory explain what underlies the productive, satisfying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ctivistically oriented Korea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644-661.
- Jordan, A. H., Monin, B., Dweck, C. S., Lovett, B. J., John, O. P., & Gross, J. J. (2011). Misery has more company than people think: Underestimating the prevalence of others' negative emo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 120-135.
- Kim, H. J., Duffy, R. D., Lee, S., Lee, J., & Lee, K. H. (2019). Application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with Korea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6), 701-713.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5th ed.). Guilford Press.
-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275-290.
- Ma, Y., Huang, G., & Autin, K. L. (2021). Linking decent work with academic engagement and satisfaction among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A psychology of working perspectiv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9*(1), 148-163.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 173-181.
- Markland, D., Ryan, R. M., Tobin, V. J., & Rollnick, S. (2005).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Social*

- and *Clinical Psychology*, 24(6), 811-831.
- Metheny, J., & McWhirter, E. H. (2013). Contributions of social status and family support to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3), 378-394.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96).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233-280).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uthén, B., & Muthén, L. (2017). Mplus. In W. J. van der Linden (Ed.), *Handbook of item response theory* (pp. 507-518). Chapman and Hall/CRC.
- Przybylski, A. K., Murayama, K., DeHaan, C. R., & Gladwell, V. (2013). Motivational, emotion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fear of missing ou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4), 1841-1848.
- Raver, C. C. (2004). Placing emotional self-regulation in sociocultural and socioeconomic contexts. *Child Development*, 75(2), 346-353.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John Wiley & Sons, Inc.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ng, J. Y., & Lee, K. H. (2023). Influence of economic and academic barriers on perception of future decent work: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work volition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1, 103842.
- Statistics Korea. (January 9, 2023). Higher education entrance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in South Korea from 2000 to 2023. In *Statista*. Retrieved August 27, 2024,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28656/south-korea-share-of-high-school-students-enrolling-in-university/>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Pearson.
- Tarsha, A. A. (2016). The role of existential therapy in the prevention of social media-driven anxiety. *Existential Analysis*, 27(2), 382-389.
- Thompson, M. N., & Subich, L. M. (2006). The relation of social status to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2), 289-301.
- Vansteenkiste, M., Lens, W., De Witte, S., De Witte, H., & Deci, E. L. (2004). The "why" and "why not" of job search behaviour: Their relation to searching, unemployment experience, and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3), 345-363.
- Walsh, W. B., & Savickas, M. L. (2005).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3rd ed.). Mahwah, NJ: Erlbaum.
- Williams, T. R., Autin, K. L., Pugh, J., Herd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M. E., Garcia, R. G., Jennings, D., & Yalom, I.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Roberts, T. (2023). Predicting decent work BasicBooks.
among US Black workers: Examining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1(4), 756-772.

원 고 접 수 일 : 2024. 09.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4. 11. 07.

최종게재결정일 : 2024. 12. 08.

The Impact of Economic Constrai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Korean Undergraduates: Serial Mediation by Fear of Missing Out and Work Volition

Heeeun Lee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onstraints and work-related variables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by those in the field of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However, the emotional impacts of these economic constraints remain underexplored. We addressed this gap by using a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with decent education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to investigate the serial mediation effects of the fear of missing out and work volition on the effect of economic constrai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outh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We collected data from 400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and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bootstrapping to validate these effec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ear of missing out and work voli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influence of economic constrai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uggesting that emotions triggered by economic barriers affect autonomy and, ultimately, career preparation. The indirect effect of economic constrai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rough work volition was also significant. Overall,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economic constrai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ear of missing out, work volition, undergraduates